

마지막 주말 세몰이 대격돌

선택 6·2 지방선거 D-5

곳곳 피말리는 접전 속 총력전

민주당 자체분석 취약지역

- 열세 5곳
순천 광양 화순 강진 신안
- 접전 7곳
서구 남구
나주 장성 곡성 해남 진도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접전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5일 앞둔 28일 마지막 주말 여론몰이로 부동산 공략에 사활을 건다. 한나라당 등 다른 정당 후보들도 막판 총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관련기사 3·4·5면〉

◇ 막판까지 '접전' = 현재 광주·전남 27개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5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7곳은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접전, 나머지 15곳은 민주당 후보가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자체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 5개 구청장 선거구 중 남구와 서구 2곳은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고, 광산구는 약 10% 포인트 차이로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다.

전남 22개 시장·군수 선거의 경우 현직 단체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순천·광양·강진·화순·신안 등 5곳은 민주당 후보가 열세를 계속되고 있다. 나주와 장성·곡성·해남·진도 등 5곳은 일치락뒤치락 접전을 벌이고 있고 나머지 12곳은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다.

또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보이거나 선전을 하고 있는 기초단체장 선거지역에는 민주당 지방의원 후보들도 상당수 고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

히 장흥의 경우 민주노동당 도의원·군의원 후보들의 '돌풍'이 거센 것으로 민주당은 분석하고 있다.

◇ 주말·휴일 대격돌 = 민주당은 주말인 29일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김효석 전남도당 위원장, 김동철 광주시당 위원장,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총 출동해 광주 서구와 남구, 전남 나주·화순·곡성·순천·광양 등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접전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지원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맞서 같은 지역 무소속 후보들도 주말과 휴일 대규모 합동 유세를 갖고 막바지 세 몰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도 김대식 전남지사, 정응화 광주시장 후보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지지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막판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민주당도 27일 강기갑 대표가 광주를 방문해 광산구와 서구 광역의원 선거구에서 지원유세를 벌이고 국

민참여당도 주말과 휴일 광주지역 중소형 아파트 단지과 대학가 등 20~30대가 밀집한 지역을 돌며 젊은 층을 공략하는 한편 투표참여를 독려했다는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꿈나무 5000명 물린 호남예술제

27일 광주 금호패밀리랜드와 우치동물원에서 열린 제55회호남예술제 미술·작문 부문에 참가한 5000여명의 꿈나무들이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 솜씨를 뽐내고 있다.

27일 광주 금호패밀리랜드와 우치동물원에서 열린 제55회호남예술제 미술·작문 부문에 참가한 5000여명의 꿈나무들이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 솜씨를 뽐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나주·곡성·영광 거소투표 부정 조사

나주와 곡성, 영광 등 전남도내에서 거소투표(居所投票) 부정이 잇따라 선관위가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전남도와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몸이 불편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한 거소투표제를 악용한 대리신고와 투표용지가 로제기 등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나주 다시면에서는 장애와 노약자 대리신고가 10여건 적발된 데 이어 투

표용지 자체가 분실됐다. 나주시 선관위는 "면 전체 거소투표자(51명) 전수를 한 결과 상당수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대리신고가 됐고 투표용지 분실 사례도 곳곳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분실된 투표용지는 사실상 대리투표가 됐음을 반증한 것이어서 유효 논란도 일 전망이다. 이밖에 나주 공산면에서는 무소속

후보 측 관계자가 서모(71)·강모(74)씨의 거소투표를 대리한 의혹과 봉황면에서는 허위 거소자 신고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곡성에서도 모 요양시설에서 원장이 특정 정당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대신 거소투표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광 염산면에서도 마을 이장이 6명의 대리신고를 한 사실이 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에 적발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광주·전남 공기업 5곳 중 4곳 적자인데...

연봉은 전국 평균 앞질러

행안부 경영정보 분석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공기업 5곳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3844만 5200원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24곳 직원 1인당 평균 연봉 3371만원보다 470여만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원들은 1년에 평균 8172여만원을 받고, CEO는 여기에 업무추진비로 1444만7000원~3301만5000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클린아이'에 따르면, 이 시스템에 등록된 지역 5개 공기업 중 지난해 직원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개발공사로 4215만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광주시도시철도공사로 3590만1000원이었다. 광주시도시공사와 김대중컨벤션센터(DJ센터), 광주시환경시설공단의 직원들은 평균적으로 1인당 각각 3868만1000원, 3877만7000원, 3671만7000원의 연봉을 받았다.

임원 1인당 평균연봉은 DJ센터가 9760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시도시공사(8660만1000원), 광주시환경시설공단(8157만8000원), 광주시도시철도공사(7994만5000원), 전남개발공사(6287만6000원) 등의 순이었다.

직원과 임원이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들 지역 공기업 5곳 중 4곳은 지난해 지자체로부터의 차입금 등 영업외수익을 제외한 순수영업에서는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 광주·전남 공기업 직원·임원 연봉 및 영업이익 (단위:만원)

기관명	직원평균임금	임원평균임금	기관장업무추진비	영업이익
전남개발공사	4215	6287.6	1736.6	-2억9400
광주시도시철도공사	3590.1	7994.5	1444.7	-710억400
광주시도시공사	3868.1	8660.1	2527.8	30억8800
김대중컨벤션센터	3877.7	9760.9	1625.4	-37억5900
광주시환경시설공단	3671.7	8157.8	3301.5	-6900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클린아이'〉

710억400만원의 영업손실이 나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영업손실액 1784억6900만원보다 적었으나, 인천메트로 695억2000만원, 대전시도시철도공사 503억6300만원보다는 많았다. DJ센터는 37억5900만원, 전남

개발공사와 광주시환경시설공단은 각각 2억9400만원과 69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광주시도시공사는 30억8800만원의 영업이익을 봤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알림



제19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 바둑대회

- 일 시 : 2010년 5월 30일(일) 오전 10시
- 장 소 : 한국기원 광주지원(광주시 주월동 국제호텔 건너편 3층)
- 참가자격 : 광주·전남지역 근무 직장인
- 팀 구성 : 단체전=1팀 3명(주장·부장·삼장)
한 직장에서 여러팀 참가 가능
개인전=각 팀에서 1명
- 참가신청 : 5월 28일(금) 오후 5시까지
한국기원 광주지원 062-675-3448
광주일보 문화홍보국 062-220-0541
- 참가비 : 1팀당 3만원(개인전 포함)
- 시상 : 단체 및 개인별 우승, 준우승, 3위
입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 수여
- 시상식 : 6월 4일(금) 오전 10시30분 광주일보 16층

주최: 光日報社 후원: 광주시바둑협회

전남 교육계 대통합!!

단일화 후보 김장환

전)전리남도교육감

투표용지 맨 마지막칸

김씨는 김장득
교육감은 김장환